



HOME    전북    교육/학교    더블

##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 개최

김봉환 기자    승인 2018.12.28 14:38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 연구팀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후성유전체 전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의학 및 식물 분야의 후성유전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이 약 30여명 참석했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부산대 김애리 교수, 포항공대 장지원 교수, 서울대 서필준 교수, 연세대 노재석 교수, 서울대 허진회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후성유전체 분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성유전체 전분야를 망라한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OME 대입 대학뉴스

#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 개최

김하연 기자

승인 2018.12.28 10:22

호수 0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군산대는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 연구팀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가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후성유전체 전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의학 및 식물 분야의 후성유전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이 약 30여명 참석하였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부산대 김애리 교수, 포항공대 장지원 교수, 서울대 서필준 교수, 연세대 노재석 교수, 서울대 허진회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과 관련해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후성유전체 분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성유전체 전분야를 망라한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군산대 제공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 군산대, 서울대서 농진청 주관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 개최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 등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참여

기사입력시간 : 2018/12/28 [10:07:00]

이영노



▲ 군산대, 후성유전체 포럼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후성유전체 전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의학 및 식물 분야의 후성유전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이 약 30여명 참

석하였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부산대 김애리 교수, 포항공대 장지원 교수, 서울대 서필준 교수, 연세대 노재석 교수, 서울대 허진회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최동수 군산대학교수는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후성유전체 분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성유전체 전분야를 망라한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군산대,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 개최

전홍선 기자

승인 2018.12.28 13:21



&lt;사진제공=군산대학교&gt;

(군산=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서울대 허진회 교수 연구팀과 군산대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후성유전체 전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의학 및 식물 분야의 후성유전체 전문가 5인이 초청됐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이 약 30여명 참석했다.

포럼은 허진회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돼, 부산대 김애리 교수, 포항공대 장지원 교수, 서울대 서필준 교수, 연세대 노재석 교수, 서울대 허진회 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포럼과 관련해 군산대 최동수 교수는 "후성유전체 CROSSOVER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후성유전체 분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성유전체 전 분야를 망라한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인쇄하기**